

2/7(월) 스가랴 묵상 8

스가랴 5: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여덟개의 환상 중에서 스가랴 5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둘째로 5-11절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마지막으로 나타난 6번째, 7번째, 그리고 8번째 환상은 모두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개인의 죄, 7번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민족적 죄, 그리고 8번째 '네 병거'는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로 추정되는 이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자신이 본대로 크기가 엄청나게 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언급합니다(1-2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여기서 먼저 두루마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경이 기록된 고대 문서를 의미합니다(겔 3: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계 10:8,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당시 성경이 쓰여진 두루마리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이거나 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사용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의 크기는 세로가 30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 길이 10.5미터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 있고 그 크기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는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도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3절상,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리고 본문은 펼쳐진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말씀을 설명합니다(3절하,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먼저, '맹세하는 자'는 십계명의 제 3계명을 연상케 합니다("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두루마리의 한쪽에 쓰여졌다는 것은 십계명 1-4계명을 대표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 쓰여진 '도둑질하는 자'는 십계명 제 8계명의 내용으로서 '인간 사랑'에 대한 5-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어긴 죄로 인해 받게 될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신 27:26,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처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창조와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미래의 초점도 주로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언 기도라는 형태로 개인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

된 예언 기도가 아니라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들어간 곳

활짝 펼쳐진 큰 두루마리가 날아간 곳은 바로 십계명의 죄를 지은 집입니다(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두루마리는 들어간 각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완전히 사르게 됩니다. 이는 심판의 철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개인이나 각 집에 해당하는 각 가정마다 당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을 말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죄는 한 가족의 죄와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적으로 불신자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섬기고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큰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라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진들과 혼인을 합니다(왕상 11:1-2,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진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진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결과 솔로몬마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도 그의 아들 때에 남과 북,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왕상 11:9상,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개인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의 죄 그리고 열방의 죄를 차례대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선 나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적질’과 ‘망령된 맹세’를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행동과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 땅을 위한 기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러시아가 무모한 전쟁을 감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무고한 백성들과 특히 주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역부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C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남아공 김영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